지유 스님은

동산스님 은사로 출가
유머 곁들여 쉽게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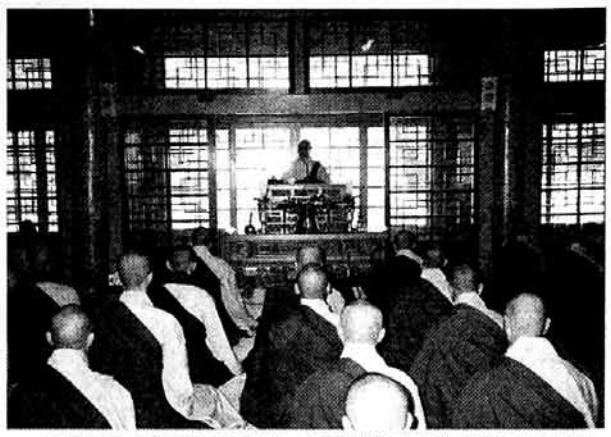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오해인, 무척이나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스님이리라 하는 고정관념이, 지유스님을 실제로 대하자 여지없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와서는 인사만 하고 불상처럼 앉아만 있어요. 차를 주어도 쓰다 달다 말도 없고… 나를 보러 왔다고 하면서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지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저 사람 혹 나를 감시하러 왔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신도들이 따라 웃는다. 유머감각이 돋보이는 말씀이기에 그 가르침이 한결 가슴에 와 닿는다. 차 한잔에서 우주를 보는 스님만이 대중들에게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선물처럼 보였다.

평소 막연한 기대로 무언가 신비적이고 색다른 가르침을 기대하며 지유스님을 친견하러 오는 사람들을 경책하는 것이리라.

지유스님은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를 일본에서 마쳤다.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스님은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50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전국의 제방 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하고 문경 봉암사 · 범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유스님은 원효암과 문경 관음사에 주로 주석하며 정형화된 형식을 탈피, 후학들을 제접하며 선풍을 떨치고 있다.



◇구랍 25일, 동안거에 들어간 선방 스님들이 반결제를 하는 날 범어사 보제루에서 스님들에게 법문하시는 지유스님.



◇지유스님은 오랜 욕심과 컨뇌를 녹이기 위해서는 매시간 치열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슨일을 하든
시간이 지루해지면
번뇌망상 들어선것

에 바로 갈 수가 있듯이 업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천년동안 한다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 천년을 왜 못 참느냐? 당장 되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을 하나 짓는 불사도 당대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억겁 동안 쌓인 업의 세력을 몇 마디 염불이나 돈 몇 푼에 갚았다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씩 갚는다는 생각으로, 천년동안 하겠다는 발심으로 꾸준히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를 걱정하자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예, 권력, 권속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허망한 것이라,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원한 보배를 챙겨야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바르지 못하다면 자신부터 마음을 바로 잡고 안팎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말고 목전의 차 한잔 잘 마시는 것으로 출발하세요." 단호한 말씀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본심이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순수무구한 본심에는 일체 티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붉은 사과를 붉다고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이렇게 만인이 공감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는 마음을 밝혀 알아야만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영삼매 빨래삼매
일상사 모든 일
본성 밝히는 재료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인연도 진정으로 화를 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묘가 있어야 해요. 겉으로만 화내고 겉으로만 웃어주는 피상적인 것으로는 안돼요."

진정으로 화를 내라니, 마음의 고요를 말씀하시던 스님이 불쑥 던진 한마디가 또 오리무중이다. 목석이 아닌 인간이 희노애락의 감정까지 자유롭게 조절하는 경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흉내낼 수 없는 자비와 엄함을 넘나드는 경계를 맛보라며 건네주는 스님의, 알사탕같이 자상한 말씀. 마음에 넣고 굴려보니 더욱 달고 깊어 말이 끊긴다.

깨달음을 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나 수행을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의 공부는 스님에게 통과되지 않는다. 어묵동정(語默動靜) 행주좌와(行住坐臥) 그 언제라도 참선할 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공부라는 것이다.

스님의,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일면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스님께서 범어사 주지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하안거 해제 후 수좌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다. 다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물살을 거스르며 해야 하는 수영이고 보니 젊은 수좌들도 금방 지쳐 쓰러지는데 스님은 5~6시간을 계속 수영을 했다. 숨을 헐떡이는 수좌들을 향해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야. 앉아 있거나 걸을 때나 수영을 할 때나 언제라도 마음이 한결같아야 해. 앉아서 삼매에 들 수 있다면 수영할 때는 온 마음으로 수영을 하는 것 또한 삼매인 것이지."

이날 수영삼매에 누가 오래 드나 보자는 스님의 말씀에 한철 잘 공부했다고 우쭐대던 수좌들은 혼쭐이 났다. 평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상에 바빠 공부할 수가 없다고 짐짓 자신의 게으름을 위안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스님의 방(棒)인 것이다. 칠순을 넘긴 지금도 수영 등 스님의 스포츠 실력은 젊은 사람을 능가한다. 스포츠를 하는 것이 여실히 깨어있는 자신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정형화된 염불이나 기도만이 공부가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치는 모든 것들이 공부이며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밝히는 재료가 된다는 가르침이다.

지유 스님은 물론, 원효암에 머무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하루 일식(一食)만을 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모두가 일을 한다. 교통이 불편한 암자이고 보니 먹을거리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텃밭을 일군다. 몇 년전 불사를 할 때도 케이블을 직접 설치하고 원효암 내의 모든 전기 시설을 상좌와 함께 손수 했을 정도. 이처럼 스님의 일상은 보편적이고 평범하며 특별한 것이 없다. 밥 먹고 잠자는 가운데 도가 있다는 가르침이 원효암 곳곳에서, 지유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해 살아나고 있었다.

"빨래를 하면서, 아이구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빨래 때문에 못하네! 하고 망상을 피우면서 빨래를 해요. 그러나 빨래를 하는 것도 공부예요. 빨래는 할 때에는 오로지 빨래밖에 없어야 해요. 과거의 망상 부리던 것을 없애고 목전에 있는 것이 전부임을 아는 것이 바로 된 공부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망상 번뇌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일념으로 한다면 일겁이 무량겁이 되고 무량겁이 일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래로 가지고 있는데 욕심과 번뇌에 가려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해요."

스님은 덧붙여 또 한번 현재의 중요성을 일러주시며 현재의 실천, 현재의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일체유심조라 했는데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업이 있어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업을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속수무책으로 있다보면 업의 세력이 커져 버려서 나중에는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려면 한꺼번에 못 가요. 한발자국 한발자국 정확하게 떼어놓아야 서울에 바로 갈 수가 있듯이 업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천년동안 한다는 마음으로 해 보세요. 천년을 왜 못 참느냐? 당장 되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을 하나 짓는 불사도 당대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십억겁 동안 쌓인 업의 세력을 몇 마디 염불이나 돈 몇 푼에 갚았다거나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금씩 갚는다는 생각으로, 천년동안 하겠다는 발심으로 꾸준히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를 걱정하자 "요즘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예, 권력, 권속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허망한 것이라,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원한 보배를 챙겨야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바르지 못하다면 자신부터 마음을 바로 잡고 안팎으로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 말고 목전의 차 한잔 잘 마시는 것으로 출발하세요." 단호한 말씀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본심이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순수무구한 본심에는 일체 티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붉은 사과를 붉다고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이렇게 만인이 공감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보는 마음을 밝혀 알아야만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종주스님

절 집에서의 스승과 제자사이는 스승 제자 사이 이상의, 속가의 부모, 자식관계가 부여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흔히 쓰이는데 이 말은 '스승 없이 함부로 머리를 깎을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어찌 자식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부모 곁을 떠나 출가를 하면 내 머리를 깎아준 스승은 바로 절집의 부모이다. 나의 정신적 지도는 물론이고 물질적 배려까지 은사가 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은사 스님과의 인연은 어쩌면 부모와의 인연 이상으로 더 소중한지도 모른다.

출가하여 한동안 은사 스님의 배려가 없으면 공부하기는 참 어렵다. 자상한 은사 스님들은 상좌에게 이것 저것을 챙겨주지만, 그렇지 못한 스님은 이름만 걸어 놓고 홀로 살아가라는 식으로 무방비 상태로 둔다. 무섭고 어려운 은사 스님 보다는 자상하고 무엇이든지 의논할 수 있는 은사 스님들은 상좌와의 관계가 원만하다.

도반 중에 정말 은사스님과 마음을 열어 놓고 지내는 스님이 있다. 강원시절 이야기이다. 종주스님은 한철의 용돈이 부족해서 인지 은사 스님께 용돈을 좀 달라고 편지를 드려야겠다고 했다. 은사스님께서는 많이 주었다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종주

용돈 보내달라는 그림편지
스승과 제자사이 신뢰확인

스님한테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다른 스님 같으면 은사 스님께 또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들어 그냥 지낼텐데 종주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평소에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스님인데도 꼭 은사 스님한테는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스님이다. 어느 날 용돈이 떨어진 종주스님은 정말 편지를 썼다. 나는 그 편지 내용이 몹시도 궁금해 한번 읽어보자고 했더니 종주스님은 스스럼없이 보여주었다. 편지는 상식을 뒤엎은 그런 내용이었다. 당연히 "존경하옵는 은사스님께 올립니다" 하고 서두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말들은 모두 생략하고, 모든 내용을 압축한 듯한 큰 나무 한 그루 그림이 전부였다.

어리둥절해 하는 나에게 스님은 설명을 했다. 이 나무는 대추나무이며 열매는 대추이고, 대추안에 돈을 써 넣은 것은 내가 남에게 빌려쓴 돈이 이렇게 대추 영글 듯이 영글어 있으니 빨리 보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은사 스님이 이 뜻을 아실까 몰으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용돈 더 보내달라는 것이 뻔뻔스러운 일이라 말로 구차하게 무어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 그림을 그려 보내는 거예요. 제 간절한 뜻을 이해하신다면 보내주실 것이고, 이해를 못 하신다면 안 보내주시겠지." 엉뚱하면서도 유머스러운 스님의 행동에 한바탕 웃었지만 과연 은사 스님이 용돈을 보내주실까, 아니면 버릇없는 놈이라고 호통을 칠까 하는 궁금증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며칠 후 은사 스님은 그 그림 한 장을 무난히 해독하셨는지 종주 스님이 요청한 용돈을 보내주셨다. 종주스님과 그 은사 스님과의 관계는 보지않아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있을까 하는 것을, 그 그림 한 장으로 모두에게 보여준 셈이었다.

종주스님은 자기 법명을 이렇게 소개한다. '종바리 종자에 술 주, 종주'라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절집의 계율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의 위트덕분에, '종주'라는 법명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잊어 버리지 않는다.

또 학교 공부를 할 때 나는 종주스님의 학구열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내가 책상 앞에 끙끙거리고 있을 때, 스님은 적당히 하고 놀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졸업 후에도 학문보다는 다른 쪽을 택해 정진하겠지 했는데 스님은 졸업을 하자말자 아무도 몰래 일본 유학 길에 올라 나름대로의 학문의 길을 다졌다.

나는 스님이 유학갔는지도 몰랐다.



어느해 초가을이었다. 코스모스가 그려진 엽서 한 장이 일본에서 왔다. 코스모스 꽃을 유독 좋아하는 내가 가을이 되면 생각이 난다고.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찾아 가서 같이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길을 걷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이 엽서로 대신한다고 하며 당분간 일본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수소문해 본 결과 종주스님이 일본에서 몇 년째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남들이 다 원하는 강사직이나 논문을 앞세워 자기의 명성을 다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산중으로 돌아가더니 지금은 은사 스님 시봉을 하면서 정진을 하고 있다. 제자를 편안하게 해 준 은사 스님의 노후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그림 한 장을 해독하시고 용돈을 바로 보내주신 은사스님의 덕망을 알기 때문일 거라고 믿는다.

나는 가끔 상좌들이 용돈을 요구할 때 종주스님의 '용돈 그림 일화'를 들려준다. 그때의 그 모습이 참 부러워서 나도 이다음에 상좌를 두면 그런 이심전심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했는데 나는 좀처럼 그런 은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종주스님은 여전히 내 가슴에 부러운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세원사 주지

불가인생론



공명을 구하면 공명을 얻고, 부귀를 구하면 부귀를 얻으며 아들이나 딸을 구하면 아들이나 딸을 얻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는다. 이제 부처가 되어 삼계에 독보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마음의 뜻이다.

지장기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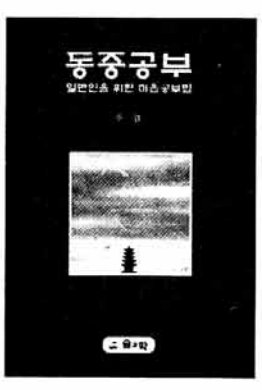
내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거나 혹시 집안에 원한을 품고 죽은 영가가 있으면 하루 빨리 원한을 풀고 죄를 참회해야 업장이 녹습니다. 영가의 장애로 병명도 없이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될 때는 영가의 장애가 걸려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관세음기도법



진실로 기도한 사람이라면 기도가 성취 될 것이고, 거짓으로 기도한 사람이면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고생만 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삼매에 빠지는데 삼매가 깊어지면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죽을 고비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중공부



서두르지 안고 느긋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수숭한 사람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습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하는 행동을 그때마다 관찰한다면 최소한의 행위로 줄어들 것입니다.

아미타불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극락세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 등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삼계의 차원을 넘어선 영원히 안락한 복지(福地)로서 시간 공간과 인과율을 초월한 경계이며,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수행으로 업장이 소멸 할 때 우리 스스로 보고 느끼고(感見)누리는(受用) 상주불변(常住不變)한 법락(法樂)의 경계입니다

환생을 위한 기도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을 수 없고, 늙고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행복한 전쟁



나의 모든 육신과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과 하나됨을 위해 사랑과 믿음을 불사른다면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삶의 어두운 적막감을 사정없이 부숴버리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돌진한다. 지치다 쓰러져도 일어서고, 일어서며 마음과 영혼은 극락을 향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극락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시를 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도를 위해서...

도서출판 솔과학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69-10 센츄리오피스텔 1110호
전화 : 02-876-4655 팩스 : 02-876-4656
핸드폰 : 011-9075-9787